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의 한국 영어교육: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영*
중앙대학교

김지영
중앙대학교

ARTICLE INFO

Received 16 June 2018

Revised 27 July 2018

Accepted 10 August 2018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Secondary/Tertiary

KEYWORD

sociocultural context/

English educ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사회문화적 맥락/영어교육/

미군정기/1차 교육과정

ABSTRACT

Kim, Tae-Young & Kim, Ji-Young. (2018).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occupation and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Focus on newspaper article analysis. *Modern English Education*, 19(3), 22-34.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nglish education system in the midst a disorganized social situation was stabilized as a formal curriculum from 1945 to 1963. This research categorized the collected newspaper articles into two phases of English educ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the first Korean national curriculum period. While noting that the periods are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early English curriculum had evolved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periods function as stepping stone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al nature of the English curriculum in Korea. English education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featured a variety of English activities and lectures intended to foster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to develop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period, the textbooks imported from the U.S. were regarded difficult for Korean secondary students to use. This U.S. military government facilitated establishing the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but it lacked education experts and appropriate textbooks for Korean student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educate teachers and revise the textbooks. In this period, Korean educators attempted to establish an education system independent from the U.S. aid, which affected the subsequent second national curriculum in the 1960s.

I. 서론

교육과정은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고민 끝에 얻어낸 노고의 산물이므로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면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의 연속선 상에서 꾸준히 수정되고 발전되므로, 현재 및 과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떠한 시대적 배경 및 역사적 맥락이 교육과정 수립에 영향을 주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Y. Hwang, 2014; Y. S. Kim, 2009; O. Kwon, 2013).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는 영어가 한국에서 단순한 영어 과목 그 이상의 의미인 권력 지향의 언어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T. Y. Kim, 2015).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1945년 9월 8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 8월 15일까지 한국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그 시기는 미군정기로 불린다(Y. S. Kim, 2009). 1945

* 제1저자/교신저자: 김태영, 제2저자: 김지영

김태영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Tel: (02) 820-5392 / Email: tykim@cau.ac.kr

김지영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Tel: (02) 820-5391 / Email: nemesiso@naver.com

년 설립된 미군정청은 북위 38도 이남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되기 전까지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미국은 한반도를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켰지만,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실권을 장악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남조선 과도 정부’라는 이름 하에 간접적 정치 권력을 행사한다(I. S. Son, 1992). 미군정청은 해방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리하여 남한을 통치하는데, 이때 미국 유학 경험이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미군정청과 남한 민중의 의사소통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반대 급부로 그들은 우선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을 독점하게 된다(J. K. Lee, 2003; I. S. Son, 1992).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백성에 대한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등교육 역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게 하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영어를 잘 구사했던 사람은 희소한 인재였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함과 동시에 세속적인 부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J. M. Kang, 2009). 이렇듯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인사가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독립운동 후 잠적하여 항해사로 일하던 신성모가 영어 능력을 인정받아 일약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한 것은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J. M. Kang, 2011, 2014). 이러한 사례는 해방 직후 권력 수단으로써의 영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영어가 권력 수단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어 사랑을 꼽을 수 있다(J. M. Kang, 2014). 이승만 대통령은 선교사들의 혜택으로 미국 유학을 하였고, 미국 체류 중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도너와 국제 결혼하여 영어가 능통했던 인물이다(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998). 즉 그가 영어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이 많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영어 열풍을 가중시켰던 부수적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뉴스 기사로 언급되지도 않을 소소한 영어교육 관련 된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게재되었으며, 당시 영어강습에 주력했던 YMCA에 1950년대 말까지 수강생의 수가 매년 20만명에 육박했던 현상들은 그 당시 영어에 대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J. M. Kang, 2014). 영어교육에 대한 노력은 개별 민중의 차원뿐 아닌 각종 학회 및 단체의 창립으로도 이어졌다. 1952년에는 한미재단(American-Korean Foundation)이 설립되고, 1954년에는 한국영어영문학회가 창립되어 유학생 선발과 영어 학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Y. S. Kim, 2009). 이와 같은 시기에 문교부는 제1차 교육과정 공포로 불완전했던 미군정기와 그 뒤를 잇는 교수요목기의 교과 내용과 교수방법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였다. 이어 1960년에는 이전까지의 미국 교과서를 개작 및 보완하는 수준이었던 영어교과서를 실생활 위주로 난이도를 낮추어 전면 개정하여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 부합하게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Y. Hwang, 2014). 이러한 제

1차 교육과정은 이후의 국가 주도 교육과정 수립과 일련의 개정 과정의 초석으로 기능하게 된다(O. Kwon, 2013).

Y. Hwang(2014)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과정은 사회언어학의 측면에서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문화, 정책, 그리고 외세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특히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까지를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전술하였듯 해방 이후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등의 현대사의 격랑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초기 영어교육과정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떻게 결부되어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핀 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하므로, 신문기사, 즉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와 같은 영어교육사적 고찰은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T. Y. Kim, 2016; E. K. Moon, 2005).

이에 본 연구는 일제 식민통치 말엽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면 금지되었던 영어교육이 해방 후 미군정기에 다시 급부상하며 새로운 영어교육 체제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미군정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까지의 영어교육의 변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당시 주요 사건들의 개요를 제시하는 정보인 신문기사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조선일보 전자 아카이브에 접속하여 당시 시대를 대표했던 3대 민간 신문사인 경향신문,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 방식을 활용한 2차 연구방식이 채택되었다(Brown & Rodgers, 2002). 신문 자료를 분석을 통해 연구에 포함되는 시기인 1945년에서 1963년 초까지를 1기와 2기로 구분하였다. 1기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미군정청을 설립했던 1945년 9월 8일부터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54년 4월 19일까지로 8년 7개월에 해당된다. 2기는 제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1954년 4월 20일부터 2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직전인 1963년 2월 14일로 8년 10개월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간 구분은 Y. S. Kim(2009)과 E. K. Moon(2005)의 선행연구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Y. S. Kim(2009)은 미군정기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교육 원조로 남한 지역에서 미국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기간을 하나의 시기로 통합하여 미군정기로 지칭하고 있다. E. K. Moon(2005)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문교부의 통제 하에 국가 교육 체계가 정비되었기에 그 이전과 이후의 영어교육은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그 전을 1기, 그 후를 2기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류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관련 신문기사 중 영어교육 관련 내용을 1기와 2기로 크게 구분하여 1기는 미군정기, 2기는 제1차 교육과정기로 명명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군정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까지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교육과정과 어떤 역동적 관계를 지니며 발전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신문 기사를 통해 분석된 미군정기의 영어교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2) 신문 기사를 통해 분석된 제1차 교육과정기의 영어교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45년 9월 8일부터 1963년 2월 14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시기별 역사적 사건이 영어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여 영어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영어’, ‘영어강습’, ‘영어교육’, ‘영어학교’를 검색어로 지정하여 그 당시에 발간되었던 신문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를 검색하였다. 영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먼저 제목에 ‘영어’가 포함된 신문기사들을 수집했다. 1차로 분류된 자료를 연구자 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영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합의된 기사들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제외했다.

표 1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의 수를 시기와 신문사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총 기사의 수는 262편이다. 표 1과 같이 미군정기에 비해 제1차 교육과정기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66편에서 196편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The Number of Articles in Each Period

Period	Kyunghyang	Dong-A	Chosun	Total
The U.S. military government	19	23	24	66
First national curriculum	72	73	51	196
Total	91	96	75	262

그림 1은 시기별 수집된 기사 자료의 비율과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1차 교육과정기의 기사가 미군정기보다 296%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친 후 국정이 안정화되어 영어교육 역시 급격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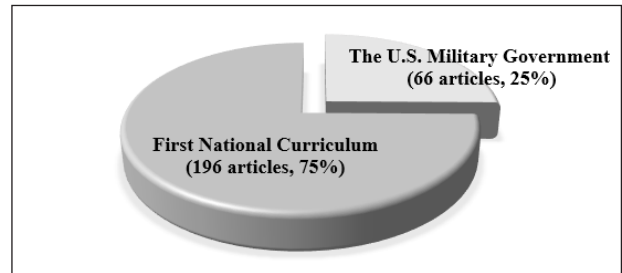


FIGURE 1 Percentage and the Number of Articles in Each Period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E. K. Moon(2005)은 1차 자료는 사건의 사실을 보여주는 원자료이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서 나타난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타당성을 보완하는 관련 문헌과 학술자료라고 하였다. 또한 Creswell(2013)은 수집된 자료의 다각화(data triangulation)는 연구 주제에 대해 다면적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1차 자료는 상기한 262편의 신문기사이며 2차 자료는 미군정기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와 관련 있는 문헌인 J. M. Kang(2014), Y. C. Kim(2011), Y. S. Kim(2009), O. Kwon과 J. R. Kim(2011), I. S. Son(1992) 등의 학술 단행본이 해당된다. 각 시기에 사용된 2차자료는 표 2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신문기사는 역사적 자료로서 사회문화적 현상 탐구의 자료로 사용되지만, 기사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된 기준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Franzosi, 1987). 이러한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에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편향성을 배제한 채 사회문화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연구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Barranco & Wisler, 1999; Franzosi, 1987). Barranco와 Wisler(1999)는 2개 이상의 신문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각적으로 기사를 분석,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 자료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사용하였고 2차 자료인 문헌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보완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각 시기별로 어떤 사건 및 현상들이 대두되었는지 먼저 살피고, 기사에서 제시되는 핵심 사건들이 당시의 사회 현상들과 맺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자 수집된 1차 자료인 신문기사와 2차 자료인 학술 단행본 자료를 질적 연구 분석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수집된 기사 원자료들 중 한자어로 된 기사들은 제1저자 책임하에 모두 한글로 변환 후 전사하였다. 그 후 본 연구의 1저자와 2저자는 전사된 기사를 각자 면밀히 읽고 코딩을 실시하여 논의 후 100% 합의를 거쳐 코딩명을 부여하고 주요 주제를 선별적으로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코딩 방식은 자료를 읽어 나가며 반복

적으로 도출되는 주제 혹은 특징적 현상을 분류하는 코딩 방식을 사용했으며(Dörnyei, 2007; Hood, 2009), 이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적 접근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Charmaz, 2014; Strauss & Corbin, 1998). 먼저 열린 코딩(open coding)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특징적인 내용을 기록하며 특징적인 주제명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열린 코딩에서 부여한 비슷한 주제어를 가진 기사들을 분류하고 상위 단계의 주제어를 부여하며 상위 주제어 간의 위계를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선별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축 코딩에서 분류된 기사 중 의미 있는 기사 내용을 선별하여 분류하고 2차 자료로 전술한 학술 단행본자료와 비교 분석하며 선별된 기사를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2는 미군정기에 사용된 열린 코딩명과 축 코딩명 그리고 2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미군정기 코딩 결과 1) 영어가 능통한 인재의 필요성과 2) 영어 교과서의 어려움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3은 1차 교육과정에 사용된 열린 코딩명과 축 코딩명 그리고 2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차 교육과정의 코딩 결과 1) 영어교육 문제점에 대한 인식, 2) 영어교사의 문제점과 교사 교육, 3) 영어 교과서 개편으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열린 코딩은 신문기사 자료만으로 코딩명을 정하고 축 코딩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해석하여 코딩명을 정하였다. 축코딩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선별코딩으로 정리하여 일부는 본 논문의 발췌로 사용하여 2차 자료와 함께 자료를 해석하여 본고의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TABLE 2

The Coding Name and Secondary Data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Open coding	Axial coding	Secondary data
· Entering politics of the English speaking talented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998; J. M. Kang, 2014; T. Y. Kim & J. Y. Kim, 2017; Y. S. Kim, 2009; O. Kwon & J. R. Kim, 2011; J. K. Lee, 2003;
· English activity	The need for the English speaking professionals	
· Military English school established		
· English education for police		
· U.S textbook distribution	Difficulty of English textbook	E. K. Moon, 2005; I. S. Son, 1992.

TABLE 3

The Coding Name and Secondary Data in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e First national curriculum period		
Open coding	Axial coding	Secondary data
· Problem of English pronunciation	Awareness of English education problems	Educational Newspaper, 1999; Y. Hwang, 2014; J. M. Kang, 2014; T. Y. Kim, 2016; T. Y. Kim & J. Y. Kim, 2017; Y. S. Kim, 2009; O. Kwon & J. R. Kim, 2011; E. K. Moon, 2005; C. M. Phee, 2011.
· Problem of English teaching method		
· Decrease in students' English skills		
· Insufficient number of English teachers	The problems of English teachers and the need of teacher training courses	
· Lack of English teachers' qualifications		
· Establishment of teacher training programs		
· The need of easy English textbooks	Renovations in English textbooks	

III. 연구 결과

1. 미군정기(1945-1954): 혼란스러운 비체계적 영어교육

1) 영어가 능통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직후 북위 38도 이남에 진주하게 된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체에 주력하며, 혼란스러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국은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국은 미국의 교육 원조를 받아 임시방편의 학제를 공포한다. 따라서 한국 교육사에서 1945년 8월에서 1946년 9월까지 1년간의 이 시기는 긴급조치기로 분류된다. 이후 미군정청은 공포된 학제를 재정비하여 교육에 필요한 핵심 교수요목을 고시하게 되어 후속하는 이 시기는 교수요목기로 구분되며 한국전쟁 이후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되기 전까지 지속된다(O. Kwon & J. R. Kim, 2011). 전술하였듯 본고에서는 Y. S. Kim(2009)과 E. K. Moon(2005)의 분류에 따라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를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미군정기를 사용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활동이 급증했는데, 그 원인은 미군정의 실시와 이승만 대통령의 영어 편향을 들 수 있다(J. M. Kang, 2014). 당시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남한에서, 친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 많은 미국의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와 친미파 총장이 재임 중이던 서울 시내의 사립대학들은 미국의 원조로 급성장했던 반면, 민족자본으로 설립되었던 기타 사립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당시 고려대학교 제2대 총장인 유진오가 취임 직후 하버드대학 교환교수로 10개월간 체류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취한 노력을 보더라도, 당시 한국 대학들에 미친 미국의 재정적, 교육적 원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998). 이처럼 미국의 원조가 사회 전반에 미쳤던 긍정적 영향은 영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 실시 후 급속히 일어나고 있던 과도한 영어 열풍에 대해 발췌 (1)과 같이 동아일보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일본의 잔재를 척결하는데 일조했으나,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과 미국 유학생들과 기독교도인들이 검증 절차 없이 지나치게 쉽게 등용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1) 일구축(日驅逐)은 미군(美軍)의 선물(贖物)

불편한 점=조선 사정을 이해 못하고 급속히 미식으로 개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점 예를 들면 민중의 여론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포고를 발령하였다가 여론이 일어난 후에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것, 또 일제 수속에 영어문이 필요한 것, 미국 유학생과 기독교도를 편용하며 인물 등용에 인재 본위가 아니고 저명(著名) 본위인 것. (Dong-A Ilbo, 1946, August 13)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24일에 비준한 한미군사협정은 앞으로 영어를 잘하는 인재가 우대받는 시대가 될 것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영어 웅변대회에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오케이 사진관’ 등의 영어 상호가 증가했던 당대 분위기도 이 시대적 분위기를 입증한다(J. M. Kang, 2014). 미군정기에 보도된 영어교육 관련 신문기사 66편 중 37편(56%)이 영어 강좌, 영어 연극 및 영어 웅변대회와 같은 영어 활동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국가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도, 영어 웅변대회에 관련된 기사가 16편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발췌 (2) 참조). 이는 비록 대화가 아닌 일방적 독백 형식이기는 하나 영어 웅변대회라는 형식을 통해 영어 말하기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회 외에 대통령이 직접 후원하는 웅변대회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영어 관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수요목기에 제시된 영어과 ‘교수사항’에는 ‘간단한 영어토론, 연설, 극 등을 연습시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O. Kwon과 J. R. Kim(2011)은 이러한 명시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실천적인 영어교육을 지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2) 학도영어웅변대회(學徒英語雄辯大會) 16일(日)부터 시공관(市公館)서

학도 영어 웅변대회 16일부터 시공관서: 중앙학도호국단에서는 오는 십육일부터 삼일간에 걸쳐 시내시공관에서 제일회 전국남녀학도 영어 웅변대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그런데 참가 범위도 각 시도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학생 남녀 각 1명과 매 학교에 1명씩으로 되어있는데 연제는 시사문제로서 자유로 선택하게 되어있다. (Kyunghyang

Sinmun, 1954, March 11)

영어 웅변대회 외에도 영어학습 증진 활동으로 영어 학교와 영어강습이 다수 발견된다. 그 당시 설립된 영어학교로 경찰영어학교, 부녀자 영어학교, 미군 영어학교가 있었고, 영어강습회로는 영어 성경 연구회, 교사 교육 연구회, 부녀 영어강습회가 기사에서 검색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영어 웅변대회나 영어 연극과 같은 영어학습 증진 활동은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정기가 일제강점기 및 제1차 교육과정기와 비교해서 영어학습 증진 활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군인과 경찰에게도 영어를 교육시켰다는 점이다(발췌 (3) 참조).

(3) 군사영어학교설립(軍事英語學校設立)

군정정 국방국에서는 “식식”대장 통솔 하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고 영어를 수업시키기로 되었다. 이들 학생은 국방군직원 122명과 경무국직원 12명 도합 144명으로 미국에 국방군 교수의 통역일을 맡아 보게 된다 한다. (Dong-A Ilbo, 1945, December 28)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대중에게 선포되었다. 이 공고문 6개 조항 중 다섯째 조항에는 미군정 기간에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한글과 영문 두 문서의 상이점이 발견되면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I. S. Son, 1992). 따라서 남한 민중과 미군 사무관 사이에 영어로 통역해 줄 군인과 경찰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미군정기에는 군사와 경찰의 영어교육 관련 기사가 빈번히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다(발췌 (4) 참조).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년 후 발발한 한국전쟁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발췌 (4)의 동아일보 1951년 기사는 전쟁 원조를 위해 남한에 증강 배치된 미군과 UN군의 의사소통을 위해 경찰관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행한다는 기사이다. 이 당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해 직전까지 친일파로 배척당했던 한국인 중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공직에 등용하기도 하였다(I. S. Son, 1992). 이러한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과거 행적을 불문하고, 신분과 출신을 넘어서 세속적 출세의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영어학습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4) 한미친선촉진(韓美親善促進) 경관영어강좌개최(警官英語講座開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군인에게 언어하통으로 편리를 보태줌이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서로 착오가 생기어 한미친선에 적지 않은 지장을 내게 됨에 비추어 오는 8월

1일부터 1개월간 경남경찰학교에서 미국인 강사 및 한국인 영어교원을 초빙하여 경찰관에 대한 하계 영어 강좌를 개최하리라 하는데, 경찰당국에서는 경찰관 외에 일반의 수강도 환영하고 있다 하며 상세한 것은 시내보 영동경찰학교에 문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다. (Dong-A Ilbo, 1951, July 31)

2) 영어 교과서 난이도의 어려움

일반인들의 영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미군정청에는 한국의 재건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도 없었고 전문가들 역시 몹시 부족했다. 그 결과, 미군정청 미군의 5%만이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미군정청 교육 담당관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었던 미국 군인 Lockard 대위가 임명되었다(J. K. Lee, 2003). 또한, 미군정청 자문기관이었던 조선교육심의회 위원 총 62명 중 외국 유학 출신 한국인은 46명, 미국인은 11명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내파 한국인들은 5명뿐인 상황이었다(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998). 따라서 이들은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W. H. Oh, 2000).

영어교사와 영어교과서의 부재 역시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미군 대위 1인이 남한 모든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교육 전문가의 실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방 후 어수선한 사회 환경에서 휴교되었던 학교가 다시 개학 하여도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교원 수를 2년 안에 185% 증가시키고, 단기간에 교과서를 출판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실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영어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Y. S. Kim, 2009). T. Y. Kim과 J. Y. Kim(2017)은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의 교과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 교과서 내에서도 어휘, 문법, 독해 지문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떨어짐을 밝히고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또는 영어 주보가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 배부되어 학교에서 영어교과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발췌 (5)와 (6) 참조). 미국학생들의 모국어인 영어로 쓰인 교과서를 같은 학년의 한국 학생들에게 활용한 상황은, 교육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5) 영어교재배급(英語教材配給)

영어교재가 민간물자 배급 계획안에 의하여 입하되어 남조선 각 중등학교에 배급된다. 이 교재는 미국 각 중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화, 시사 문제 등을 취급한

것이므로 각 초급중학교에 매학교 50부씩 고급중학교에는 각 학급에 40부씩 할당하였다. (Dong-A Ilbo, 1948, July 6)

(6) 영어주보배급(英語週報配給) 중등교과과용(中學校教科用)으로

문교부에서는 미국서 수입한 중학교 생도들도 볼 수 있는 쉬운 영어주보를 영어교과서로 쓰고자 배급 중이었는데 그 내용은 동화, 시사문제 등을 취급한 것이라 한다. (Kyunghyang Sinmun, 1948, July 6)

환언하면, 해방 이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남한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고, 미군과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또한, 친미 성향 인사들이 관직 등용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른 당시 영어교육의 특징으로 영어 강좌, 영어 연극 및 영어 웅변대회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좌우익의 대립 및 한국전쟁 등의 국가적 변란으로 인한 군인과 경찰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육 기관 역시 설립된다. 당시 미군정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향 역시 영어 수요 급증에 일조했음이 신문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해방과 한국전쟁에 따른 어수선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이렇듯 급증하는 영어 수요를 체계적 뒷받침할 교육 전문가와 교과서는 매우 부족했던 실정 역시 당시 신문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2.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체계적 영어교육의 발아기

1) 영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발발한 한국전쟁 등으로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교육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임시방편으로 미군정기에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와 교수요목 제정으로 학제를 정비하는 큰 틀에서의 시도 정도만이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은 제1차 교육과정 수립으로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최초로 공포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교과중심’의 제1차 교육과정으로 명명된다(O. Kwon & J. R. Kim, 2011).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시행된 이전의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영어교육이 최초로 시도되었다. 아울러 영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와 적합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심도 있는 토론이 신문 지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앞으로의 영어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조선일보는 일련의 사설을 통해 당시 직면했던 영어교육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피력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발췌 (7)의 신문 사설은 문법-번역식(the Grammar

Translation Method) 수업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실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7) 영어교육(英語教育)의 긴급문제(緊急問題): 표준발음(標準發音)에 대(對)하여
 (...) 영어교사의 자질과 수, 교재와 교수 시설 및 제반 여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발음 문제에 관하여 일언하기로 한다. (...) 해방 후 등장한 영어는 “산 영어”요 “소리 있는 영어”다. “산 영어”의 교육에 대하여 강조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발음인 것이다. 영미인이 우리에게 희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 발음인 것이다. (...) 먼저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 한다. (Chosun Ilbo, 1954, September 20)

발췌 (7)에서는 한국인의 영어 발음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발음을 배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 K. Moon(2005)은 제1차 교육과정기의 영어교육을 담당했던 일선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여전히 일본식 영어가 잔존하여 영어 발음의 문제가 제기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발음을 습득할 것이 권장되었다고 한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수요목기의 교수법인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청화식 교수법(the Audiolingual Method)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교수요목기와의 차이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당시 교육심리학에서 크게 유행하던 행동주의 및 구조주의를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여 암기와 반복 훈련에 기반하여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학생들에게 학습 시켰다는 점이다(O. Kwon & J. R. Kim, 2011). 결국, 행동주의 등으로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으나, 미군정기에 미군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구어 중심 영어교육이 절실했음에도 결국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왔던 문법-번역식 수업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Y. Hwang, 2014; T. Y. Kim, 2016).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발췌 (8))는 일제강점기에 해석에 의존했던 영어교육 방법을 비판하며 번역식 교육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발음 문제를 지적하며 더 나은 영어 발음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8) 현행외국어교육(現行外國語教育)의 시비(是非)
 전국적으로 영어, 기타 대부분의 외국어교사가 쓰고있는 교수법은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상인데 아마 이것은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최악의 것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영어 공부한 대학생이 간단한 회화 한마디 편지 한 장 자유롭게 못 쓰는 결과가 어디서 온 것인가? (...) 전적으로 교수법이 나빠서 학생들이 병이 든 것이므로 책임은 우리 외국어교사들이 져야 한다. (...) 도대체 대부분의 영어교사가 영어회화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부터 비극이다. (Dong-A Ilbo, 1957, October 4)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발췌 (8) 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비효과적인 영어교수법을 비판하며 학생들의 회화 실력의 저하와 함께 영어교사의 영어회화 실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발췌 (9) 기사 역시 일제강점기의 영어교육 방법을 비판하고 번역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문제 삼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발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9) 진보(進歩)냐 退步(퇴보)냐: 英語教育(영어교육)에 對(대)한 雜感(雜感)
 퇴보냐 진보냐: (...) 일제 시대의 학생들이 공부한 방법은 대체로 단어와 난문 해석에 주력을 기울였다. (...) 그러나 근자의 영어교육 방향은 이와 전연 다르다. (...) 번역 교육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만 영어 교실에 있어서 난해한 교재를 영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해 시키려는 노력은 종종 교수로 하여금 비 효과적이 되게 하는 일이 많다. (...) 교사는 자기 발음의 단점을 아는가: (...) 영어교원들은 녹음기나 전문가 앞에서 일학년생으로서 자신의 발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Chosun Ilbo, 1955, July 10)

하지만, 이상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던 정확한 영어발음을 연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영어 문법과 독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 역시 발견된다. E. K. Moon(2005)은 일제강점기 대학입시 시험을 위한 문법과 독해 교육이 제1차 교육과정기에도 유지되었다고 지적한다. 발췌 (10)의 기사는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영문법을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내용은 그 당시 대학입시에서 영문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졌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0) 대학입시(大學入試)를 앞두고: 영어(英語) 문법(文法)을 철저(徹底)히: 김숙동(이화여고 교사)
 입시영어문제의 반 내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문법에서 수험생들이 반드시 충분히 익혀 두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를 적어 보기로 한다. 영문법 문제 하면 으레 동사에 관한 것이 (...) 시제에 관한 문제부터 (...) 조동사에서는 should와 would의 특별 용법 (...) 수동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 If가 생략되는 경우(...) (Chosun Ilbo, 1959, January 26)

그림 2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출제되었던 ‘대학입학 자격 국가 고사’의 영어문제이다. 문제는 총30문제로 영어발음 강제, 철자, 어휘, 올바른 영작 고르기, 빈칸 추론, 독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해 문제는 10문제로 가장 많은데, 이를 통해 당시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실용영어보다 단어, 문법, 독해 영역이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험의 환류 효과로 인해 당시 중등학교에서의 영

어교육 역시 말하기나 듣기 등의 구어보다는 문어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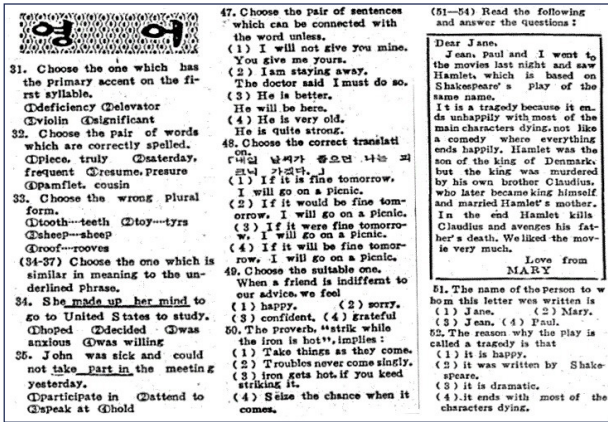


FIGURE 2 National Qualification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 (Chosun Ilbo, 1962, December 14)

영어 문해력 중심의 대학입시를 거쳐 선발된 당시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에도 주로 원서를 읽고 학술적 영어에 필요한 문어 중심의 영어 능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발췌 (11) 기사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독해력을 길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신문 지상을 통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던 것으로 보아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직전 시기인 미군정기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영어교육(英語教育)의 반성(反省): 영어영문학회(英語英文學會) 토론회(討論會)에서 저하(低下)되는 학생실력(學生實力): 근본적(根本的) 검토(檢討)가 긴급(緊要) (...) 아직도 영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가장 긴급한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부분 원서를 이해케 하는 데 제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독서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그 다음 교과과정(커리큘럼)과 교과서 문제에 들어가서 중고교부터 교재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고 같은 고교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영어실력의 차가 현저하며 또 일반영어교재가 대개 그 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되었다. (Chosun Ilbo, 1959, July 2)

이상에서 분석한 신문기사 중 일부는 당시 영어교육의 문제로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탈피하여 구어 중심의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또한 대학에서의 영어 원서 독해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구어보다는 문해력 향상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인

구어 대(對) 문어 중심 교육에 대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이 신문기사 분석 결과 나타나고 있다.

2) 영어 교사의 문제점과 교사 교육

영어 발음, 영어 교수법, 교과서와 관련된, 영어를 교육하는데 나타나는 문제 외에도 예비교사들의 낮은 교사채용 시험 점수와 영어교사 구인의 어려움을 보도하는 기사 역시 발견된다. 발췌 (12)의 기사에서는 해방 후 유학생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유능한 영어교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교원 수급 상황과 관련 있는데, 해방 직후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원의 수가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47년부터 교원 임시 양성소가 설치되었다(O. Kwon & J. R. Kim, 2011).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 모두 교원 충원율이 매우 미흡하였기에 교원 확보에 집중하여 중등 교원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교육 및 교원 자격증 제도가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 없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역시 제기되었다(Education Newspaper, 1999). 전술하였듯 발췌 (7)에서는 교사들의 영어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발췌 (8)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교육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발췌 (13)에서는 영어교사 채용 응시자들이 영문과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채용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영어교사의 자질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12) 구(求)하기 어려운 영어교사(英語教師)

영어는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겠는데, 그와 반대로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우수한 영어교사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니 이상한 현상이다. (...) 해방 후 그렇게 미국유학생이 많다고 하지마는 그들 중 영문학이나 영어학에 뚜렷이 두각을 나타낸 신진이 없는 모양이다. (Chosun Ilbo, 1955, August 5)

(13) 중(中)·고교영어교사채용시험(高校英語教師採用試驗) 19명중(名中)에 50점이상(點以上)이 겨우 육명(六名) 경북도 당국이 시행한 중·고교 영어교사 채용시험 결과 단 2점을 받은 응시자가 수도륙하여 관계자를 당황케 하고 있다. 일반대학 영문과 4년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19명의 응시자에 대해서 시행한 이번 시험에서 시험 결과가 너무나 불량하여 60점의 합격선을 50점으로 내려 겨우 6명의 합격자를 내었다. (Kyunghyang Sinmun, 1961, August 5)

당시 문교부 당국에서는 영어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교육을 위한 단기 강좌를 개설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강좌들은 영어교사들의 발음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삼았는데, 이 시기 상

당수의 영어교사들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아 일본식 영어 발음을 답습하며 문법-번역식 수업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Y. Hwang, 2014). 결국,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한국의 교육은 이러한 영어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것이 급선무로 인식되었다. 문교부는 제1차 교육과정을 공포하기 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재교육을 위해 외국어 학원을 설치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수강하도록 채근하기도 했다(Kyunghyang Sinmun, 1953, April 1). 본 연구에서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영어교사들을 위한 영어강습회와 공개강좌를 공지하는 기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영어교사교육을 위한 강좌 내용은 영문법, 영작문, 영어독해 교수법, 영어 발음, 영문학, 영어학 등 다양했다. 또한, 1953년 10월에는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이 공포되어 교원자격증이 10년으로 규정되고 갱신할 때는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Education Newspaper, 1999).

발췌 (14) 기사는 한 중학교 교사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FLI)에 수강 문의를 한 내용이다. FLI는 영어교사의 훈련, 정부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유학생들과 일반인의 어학훈련 등을 담당했으며(Dong-A Ilbo, 1963, April 2), 현재는 언어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다양한 수준의 영어교사(재)교육을 알리는 기사들과 프로그램에 문의 기사가 발견되고 있다.

(14) 응접실: 영어교사(英語教師)의 FLI수강수속(受講手續)은?
 문: 저는 모 중학교 영어교사입니다. 일전 어떤 신문에서 서울대학교 내 문리과 대학에 있는 “에프 엘 아이(FLI)”에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도 수강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수강하려면 그 수강 수속을 어떻게 취하여야 하며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으켜 주십시오. (서울 아현생)
 답: “에프 엘 아이”에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외부에서 발행된 외국여행 “패스”를 가진 사람, 둘째 외국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가진 사람, 셋째 정부에서 해외에 파견하기로 된 공무원들, 넷째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사 등인데 정원관계상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사는 자리가 있어야 수강이 허용됩니다. 수강 기간은 3개월이며 수강 수속은 수강 신청서에 이상 네 가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교부 비서실 이병수) (Chosun Ilbo, 1957, July 23)

3) 영어 교과서 개편

이 시기의 학교 영어교육에서 발견되었던 문제는 부족한 교사의 수와 교사의 실력 외에도 학생들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교과서였다. 제시된 발췌 (15)와 (16) 기사는 중학교 교재의 내용이 지나치게 난해하여 교과서 개편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미 전술하였듯 해방 이후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미국의 동일학년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과서를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들여온 교회 주보를 교과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T. Y. Kim과 J. Y. Kim(2017)의 교수요목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의 가독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영어교과서는 미국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영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지문의 수준은 대학생 이상의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어려운 내용의 교과서를 교육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기대와 달리 교사들의 영어 발음의 문제와 영어의 실제 사용의 어려움(발췌 (7), 발췌 (8)), 학생들의 영어실력의 저하(발췌 (11)), 영어교사의 부족한 실력(발췌 (13))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15) 너무 어려운 중학(中學) 영어교과서개편(英語教科書改編) 내후년(來後年)엔 쓰도록
 개편 취지는 현 영어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그 결함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는 사용단어(어휘)수가 1, 2, 3년용을 합해 1,500개범위내에 있어야 하는데 약 5,000개나 된다는 점 그리고 (...) 읽기에만 치중되어 있어 실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Dong-A Ilbo, 1958, August 23)

(16) 바꾸게 된 영어교과서(英語教科書): 쉽고 생활(生活)에 맞는 내용(內容)으로
 (...) 암기나 번역 위주가 아닌 학습을 꾀하여 보고자 문교부에서는 내년 신학기를 기해서 우선 중학생용 영어독본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 우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의 교과서들은 대체로 너무 어렵다. 문장의 내용이 우리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 (Chosun Ilbo, 1959, December 3)

발췌 (15) 및 (16)과 같은 신문기사들은 기존의 교과서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암기와 번역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O. Kwon과 J. R. Kim(2011)에 따르면 이 시기에 실제로 개정된 교과서는 학생들간의 의사소통보다는 여전히 문법구조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당시 구조주의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으로 암기와 연습 중심의 학습 위주였다고 비판한다. E. K. Moon(2005)은 교수요목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교과서 내의 연습문제, 지문, 교재의 소재에 큰 차이가 없어 제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고 했다. 이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교과서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한계를 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적 시행착오를

거치며 후속했던 제2차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영어지문을 수록하고 더 풍부한 문법 용례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다(O. Kwon & J. R. Kim, 2011).

제1차 교육과정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영어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영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문법-번역식 수업과 한국인 영어교사의 영어발음에 대한 지적 그리고 영어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자주 발견된다. 이것은 일본식 영어의 잔존과 당시 구조주의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수와 자질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교사 재교육을 위한 단기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영어교과서가 미국 교과서 지문을 답습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렵고 청취나 회화가 아닌 독해 위주, 번역 학습에 초점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반면 현실적인 독해 중심의 영어 원서 강독의 필요성으로 여전히 회화보다는 문법과 독해력 증진을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현실론 역시 대두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 후기에는 4·19혁명과 제2공화국 수립, 그 직후의 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의 수립 등의 정치적 격변이 잇따랐다(C. M. Phee, 2011). 4·19혁명 이후의 2대 대통령 윤보선과 총리 장면을 비롯한 정치인들 역시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미국에 의한 강력한 정치적 개입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의존 역시 지속되었다. 제2공화국이 5·16군사정변으로 불과 1년 후 붕괴되고, 이후 수립된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및 수출지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는 이제 국가 증흥을 위한 통상(通商)의 공용어로서 더욱 각광을 받게 된다(J. M. Kang, 2014). 교육과정 역시 1963년에 제1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성을 갖춘 제2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이와 함께 영어 교과서 역시 개정되었다(Y. S. Kim, 2009).

IV. 요약 및 제언

본 신문기사 분석 연구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영어가 사회와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945년부터 1963년 초까지의 기간을 교수요목기를 포함하는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기로 나누어 당시의 신문 자료를 분류하고 영어교육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사건을 학술 문헌 자료들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기 우리 교육은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태생적 한

계가 있었다. 이는 당시 열악했던 경제 상황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미군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S. H. Jung, M. R. Park, S. H. Jang, & I. C. Kang, 1999; H. S. Lee, 2008).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영어를 즐겨 사용했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목도한 대중들은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J. M. Kang, 2011, 2014). 이 당시 신문에서는 영어 웅변대회, 영어연극, 강습회와 같은 영어관련 활동들을 알리는 기사들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군인들과 경찰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 기관의 설립을 알리는 기사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듯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력으로 영어 학습은 민중들에게 세속적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영어에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준비 미흡으로 미군정기와 교수요목기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는 신문기사에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원조로 미국에서 사용된 교과서와 주보를 학교에 배포했다는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노력했으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으므로 당시의 일반적 교수법이었던 문법-번역식, 독해 위주의 교육을 답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후 1차 교육과정기의 신문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고 미군정기의 교육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영어교육의 목적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신문 지상에서 발견되었다. 신문 사설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학교 교사들에 의해 작성된 것들로 일본식 영어 발음의 문제, 구어 위주의 영어 구사의 어려움, 학생들의 영어실력 저하, 교사들의 실력 문제, 난해한 교과서, 그리고 문법 위주의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어교육의 바람직한 지향점 설정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학입시를 위한 기존의 문법 및 독해 위주의 학습은 여전히 많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장려되고 있었다.

이렇듯 제1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에 대중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유로는 1950년대 전후 대중들의 높은 교육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J. M. Kang, 2009; W. H. Oh, 2000). 사실 입시 열풍의 시작은 ‘대학생 병역 연기 조치’로 한국전쟁 중에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에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다(Y. S. Kim, 2009). 이러한 입시 열풍은 영어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위해 문법-번역식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 자격 국가 고사’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학습 심리에 영향을 받아 행동주의와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암기식 어휘와 문법 교육 역시 한국의 영어교육에 영향을 미쳤다(O. Kwon & J. R. Kim, 2011).

많은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자행되었던 문법-번역식 수업의 폐해와 더불어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영어교사들의 발음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교원 자격시험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교사들을 재훈련시키기 위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강습회와 공개강좌가 개설되고 신문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되었다. 교사 문제와 함께 영어교육의 문제로 난해한 교과서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도 발견되었다.

미군정기와 제1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특징을 오늘날의 영어교육에 비추어 볼 때, 미군정기부터 이어진 높은 영어교육열은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기에 세속적 출세를 위한 영어 학습은 2018년 현재 취업과 승진을 목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많은 성인 영어 학습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T. Y. Kim(2016)은 이러한 유사성이 일제강점기의 영어교육 현상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듯 영어교육 정책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이러한 외재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이에 따라 영어교육의 흐름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하며, 이러한 변화상이 영어교육에 어떠한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양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D. Kim & T. Y.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기에서 교수요목기를 거쳐 제1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영어교육 현상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현상을 2차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에 한하여 당시의 영어교육 현상을 해석이 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의 영역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차 교육과정 이후의 영어교육 정책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제반 요인에 대한 분석 역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rranco, J., & Wisler, D. (1999). Validity and systematicity of newspaper data in event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5(3), 301-322.
- Brown, J. D., & Rodgers, T. S. (2002). *Doing second language research: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cond language research for graduate/master's students in TESOL and applied linguistics, and o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998). *The selection and refrac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 1950s*. Seoul: Yeoksabipyongsa.
- Dörnyei, Z. (2007). *Research method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ducation Newspaper. (1999). *100 years of Korean education* (Vol. 1). Seoul: Education Newspaper.
- Franzosi, R. (1987). The press as a source of socio-historical data: Issues in the methodology of data collection from newspapers. *Historical Methods: A Journal of Quantitative and Interdisciplinary History*, 20(1), 5-16.
- Hood, M. (2009). Case study. In J. Heigham & R. Croker (Eds.), *Qualitative research in applied linguistics: A practical introduction* (pp. 66-90). Basingstoke, England: Palgrave Macmillan.
- Hwang, Youngsoon. (2014). The history of American English education in Korea: Reflection and new direction.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40(2), 201-238.
- Jung, Sung-Ho, Park, Myung-Rim, Jang, Sang-Hwan, & Kang, In-Cheol. (1999). *Changes in the Korean war and social structure*. Seoul: Baeksanseodang.
- Kang, Joon-Mann. (2009). *Cruelty of the entrance exam*. Seoul: Inmulgwa Sasangsa.
- Kang, Joon-Mann. (2011). *Special country Korea*. Seoul: Inmulgwa Sasangsa.
- Kang, Joon-Mann. (2014). *Koreans and English education*. Seoul: Inmulgwa Sasangsa.
- Kim, Damee, & Kim, Tae-You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resilienc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English class attitude, and English learning achiev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9(1), 120-136.
- Kim, Tae-Young. (2015).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English learning and its implication to English education: Four sociological approach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1(3), 105-134.
- Kim, Tae-Young. (2016). An investigation of socio-educational aspects of English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Chosun Ilbo and Dong-A Ilbo articl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1(1), 179-210.
- Kim, Tae-Young, & Kim, Ji-Young. (2017). An analysis of <The National English Readers> in the formation stage of the contemporary education system (1946~54).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2), 2-29.
- Kim, Young-Chul. (2011). *English awakens Chosun*. Seoul: Illy.
- Kim, Young Suh. (2009). *History of Korean English education*. Seoul: Hankukmunhwasa.
- Kwon, Oryang. (2013). A history of Korea's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79(1), 25-56.

- Kwon, Oryang, & Kim, Jung-Ryeol. (2011). *History of English education*. Seoul: Hankukmunhwa.
- Lee, Hye-Sook. (2008). *U.S. military governance structure and Korean society*. Seoul: Sunin
- Lee, Jung-Kyu. (2003). *Credentialism and academic factionalism in Korean society: Origins and development*. Seoul: Jibmundang.
- Moon, Eun-Kyong. (2005). A historical research on English textbooks in the formation stage of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system in Korea.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3), 245-269.
- Oh, Wook-Hwan. (2000). *The education fever in Korean society: Origins and deepening*. Seoul: Gyoyukgwahaksa.
- Phee, Chung-Man. (2011).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 history*. Seoul: Hau.
- Son, In-Soo. (1992).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and education policy*. Seoul: Minyoungsa.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 List of the articles discussed in the study >
- Chosun Ilbo. (1954, September 20). Yeong-eo gyoyug-ui gingeub munje: Pyojun bal-eum-e daehayeo [Urgent problem of English education: About standard pronunciation].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40920004&Y=1954&M=09
- Chosun Ilbo. (1955, July 10). Jinbonya toebonya: Yeong-eo gyoyug-e daehan jabgam [Progressive or depressed: Miscellaneous thoughts about English education].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50710004&Y=1955&M=07
- Chosun Ilbo. (1955, August 5). Guhagi eolyeoun yeong-eogyosa [Hard-to-find English teacher].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50805002&Y=1955&M=08
- Chosun Ilbo. (1957, July 23). Eungjeobsil: Yeong-eo gyosau FLI sugang susog-eun? [How do English teachers apply for FLI classes].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70723002&Y=1957&M=07
- Chosun Ilbo. (1959, January 26). Daehag-ibsileul apdugo: Yeong-eo [Ahead of college entrance exam: English].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90126204&Y=1959&M=01
- Chosun Ilbo. (1959, July 2). Yeong-eo gyoyug-ui banseong [Reflection of English education].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90702204&Y=1959&M=07
- Chosun Ilbo. (1959, December 3). Bakkuge doen yeong-eo gyogwaseo: Swibgo silsaenghwal-e matneun naeyong-euro [Revised English textbooks: Easy, real-life content].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591203204&Y=1959&M=12
- Chosun Ilbo. (1962, December 14). Daehak ibhak jagyeok gukga gosa munje: Suhak, sahoe, gugo, yeong-eo [National test for university entrance qualification: Mathematics, society, Korean, English].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proxy.cau.ac.kr/ac7d73d/_Lib_Proxy_Url/cdb.chosun.com/search/pdf/i_archive/read_pdf.jsp?PDF=19621214005&Y=1962&M=12
- Dong-A Ilbo. (1945, December 28). Gunsae yeong-eo hakgyo seollib [Military English school established].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512280020920201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5-12-28&officeId=00020&pageNo=2&printNo=6847&publishType=00020>
- Dong-A Ilbo. (1946, August 13). Ilguchuk eun migun ui seonmul [A gift from the US military to drive Japan].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608130020920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6-08-13&officeId=00020&pageNo=3&printNo=7053&publishType=00020>
- Dong-A Ilbo. (1948, July 6). Yeong-eo gyojae baekeub. [English textbook distribution].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70600209202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7-06&officeId=00020&pageNo=2&printNo=7636&publishType=00020>
- Dong-A Ilbo. (1951, July 31). Mi-chinseon chokjin gyeongwan yeong-eo gangjwa gaechoe [Holding an English course on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1073100209102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1-07-31&officeId=00020&pageNo=2&printNo=8588&publishType=00010>
- Dong-A Ilbo. (1957, October 4). Hyeonhaeng oegug-eo gyoyug-ui sibi [Argument of curre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00400209204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0-04&of>

- ficId=00020&pageNo=4&printNo= 10775&publishType=00020
- Dong-A Ilbo. (1958, August 23). Neomu eoryeoun junghak yeong-eo gyogwaseo gaepyeon naehunyeon-ensseudorok [Reorganization of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that are too difficult].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82300209103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823&officeId=00020&pageNo=3&printNo= 11097&publishType=00010>
- Dong-A Ilbo. (1963, April 2). Yeong-eo bul-eoban mojib [Recruitment of English and French language learners]. *Dong-A Ilbo*.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04020020920501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04-02&officeId=00020&pageNo=5&printNo=12745&publishType=00020>
- Kyunghyang Sinmun. (1948, July 6). Yeong-eo jubo baegub jungdeung-gyo gyogwayong-eulo [Distribution of English weekly bulletins to use secondary school textbooks]. *Kyunghyang Sinmun*.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70600329202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7-06&officeId=00032&pageNo=2&printNo=543&publishType=00020>
- Kyunghyang Sinmun. (1953, April 1). Jung-godeung yeong-eogyosa jaehunryeon [Secondary English teacher retraining]. *Kyunghyang Sinmun*.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3040100329202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3-04-01&officeId=00032&pageNo=2&printNo=2109&publishType=00020>
- Kyunghyang Sinmun. (1954, March 11). Hakdo yeong-eo ung-byeon daehoe 16-il buteo sigonggwanso [Students English speech contest starting from the 16th at the national theater]. *Kyunghyang Sinmun*.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31100329202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3-11&officeId=00032&pageNo=2&printNo=2452&publishType=00020>
- Kyunghyang Sinmun. (1961, August 5). Gogyo yeong-eo gyosa chaeyong siheom 19myeongjung-e 50jeom isangi gyeou 6myeong [In the high school English teacher recruitment test, more than 50 points were only 6 out of 19]. *Kyunghyang Sinmun*.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80500329102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1-08-05&officeId=00032&pageNo=2&printNo=4792&publishType=00010>